

상주박물관 소장 太祖, 太宗大王 追上尊號時 班次圖의 서지적 분석

안 휘 섭*

- I. 머리말
- II. 반차도의 의미와 역사
- III. 太祖大王, 太宗大王 追上尊號 班次圖 형식 및 특징과 제작 배경 관련 내용
- IV. 1862년 『純祖大王追上尊號純元王后追上尊號都監儀軌』 속의 반차도와의 비교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대상은 상주박물관에 소장된 반차도로 조선후기 고종 때 문신이던 柳厚祚의 가문에서 기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관련 기록에 대한 사료 조사와 유사한 성격의 반차도 및 이를 수록하고 있는 의례류를 검토하고 서지적인 분석을 통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 반차도의 제작의 목적은 1871년 11월부터 왕과 신하들의 논의 가운데 이듬해인 1872년이 조선 개국 8주갑인 480년이 되는 해가 되는 까닭에 태조와 태종의 존호를 더하여 올리는 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 lapelay@knu.ac.kr

둘째, 추상존호의 행사는 1872년 1월 4일로 결정되고 그 주관자인 도제조로 柳厚祚가 임명되고 도감을 열어 분야별 준비를 하였고 더불어 같은 날 春享大祭도 거행되었다. 또 추상존호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慶科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셋째, 이 반차도의 구성은 중앙 행렬에는 龍亭, 香亭, 腰輿, 彩輿를 중심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鼓吹, 典樂, 褥席軍, 床軍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렬은 태조, 태종의 순서로 맨 앞에는 使令과 書吏이 있으며 용정과 향정, 요여 뒤의 金寶彩輿의 사이에는 差備官이 있고 巡牢 뒤편에 都監都提調와 提調 3인, 都廳, 郎廳, 監造官, 禮曹堂上, 禮曹郎廳이 차례대로 행렬의 뒤를 따른다.

넷째, 반차도의 좌우 鹵簿에는 旗幟 5기를 비롯한 扇, 斧, 蓋를 합하여 18기가 나란히 행진하며 뒤이어 말을 탄 禁軍이 5기씩 따른다. 이 가운데 이물의 형상은 印刻한 목판을 사용하여 같은 형상이 중복된 경우도 있으며 향정과 용정은 1862년에 사용한 목판을 다시 사용한 후 색깔을 넣어 완성하였다. 差備官이나 褥席軍, 鼓吹 등도 같은 이미지를 반복 사용하였다.

다섯째, 高宗 시기에는 추상존호의 행사가 가장 많았던 시기로 대체로 왕권의 위엄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선대 왕들을 올리는 의식이지만 당시는 신하들의 주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많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러한 경향이 더 반복해졌다.

이상과 같은 검토에서 이 반차도는 태조와 태종의 추상존호를 위한 행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도감의 도제조이던 류후조가 소장하였던 것이다. 전체적인 행차는 19세기 같은 목적의 다른 반차도와 유사한 점도 많으나 17세기부터 사용되던 인각 목판과 채색, 그리고 부감법을 이용하여 위에서 경사지게 내려보는 형식으로 공간감을 주고 시각적인 입체감을 주는 특징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반차도는 의궤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작되어 도제조가 개별적으로 소장하여 전래된 것으로 당시 행사에 관련된 모든 기록 즉 목적과 분야별 작업, 행사의 절차, 행사 후 포상 등에 관련된 모든 기록

이 承政院日記 등에 상세하게 남아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개발에 활용하는 등 행사의 복식, 기물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인각 목판에 의한 인쇄 방법연구에 큰 도움을 주며 필수적으로 보아야 할 자료이다.

◆ 주제어

班次圖, 柳厚祚, 追上尊號, 太祖大王, 太宗大王

I. 머리말

이 반차도는 현재 상주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로 상주 출신으로 조선후기의 문신인 1872년 柳厚祚가 도감의 도제조로 태조와 태종의 追上尊號 의식을 주관할 때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는 1872년의 2개월 전에 고종의 명에 의하여 다가오는 해가 조선개국의 8周甲(480년)이 되는 해이므로 개국할 때의 선왕인 두 왕에 대하여 당시 4자이던 존호를 8자로 올리는 행사가 거행되었고 이에 참고를 위하여 그려진 행렬도이다.

이 집안의 자료는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상주박물관에도 간찰, 문서 등의 자료가 기탁되어 있다.

한편 이 자료 소장의 주인공이며 당시의 행사를 주관하였던 류후조는 본관이 豊山이고 자는 載可, 호는 梅山, 洛坡, 嶺梅 등이었으며 都正 柳尋春(1762-1834)의 아들이었다.

1858년(철종 9) 정시문과에 급제한 뒤 부사, 부호군을 지내고 1864년(고종 1)에 이조참판, 이듬해 공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다. 이후 흥선대원군의 남인계 인사 중용책에 따라 1866년 우의정에 이르렀다. 같은 해 奏請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그곳 서양인들의 동정을 복하였고 병인양요 때에는 상주에 살던 아들 柳疇睦에게 의병을 일으키게 하였다. 1867년 좌의정에 오르고, 1872년에는 관중추부사로 관직에서 물러나 奉朝賀가 되었으며 시호는 文憲이었다.

현재까지 규장각, 장서각 등 중앙기관과 도서관에 소장된 반차도가 여러 점이 알려져 있고 특히 의례를 만들 때 포함된 것도 적지 않다. 그 목적은 왕과 왕실 등에 관련된 행사를 거행함에 있어서 세밀한 참고를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오늘날 당시 국가 행사의 의장, 의식, 제도를 비롯하여 복식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상주박물관 소장 반차도는 태조와 태종의 추상존호를 위한 행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도감의 도제조이던 류후조가 소장하였던 것이다. 전체적인 행차는 19세기 같은 목적의 다른 반차도

와 유사한 점도 많으나 17세기부터 사용되던 인각 목판과 채색, 그리고 부감법을 이용하여 위에서 경사지게 내려보는 형식으로 공간감을 주고 시각적인 입체감을 주는 특징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반차도는 의궤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작되어 도제조가 개별적으로 소장하여 전래된 것으로 당시 행사에 관련된 모든 기록 즉 목적과 분야별 작업, 행사의 절차, 행사 후 포상 등에 관련된 모든 기록이 承政院日記 등에 상세하게 남아있어서 다른 존호의식의 반차도 및 그 의궤와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뿐만 아니라 상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반차도는 간행되는 책과 같이 여러 부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희소성이 높고 이 1872년의 반차도는 이러한 추상존호의 행사가 많았던 고종때의 것으로 제작기법에 있어서도 印刻彩色法 즉 형상을 목판으로 새겨 찍은 후 채색을 하는 당시 의궤 등의 판화를 제작하는 방법이 여기서도 사용되었다.

반차도의 사례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1872년 1월 4일의 행사와 반차도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으며 대부분의 반차도는 주로 규장각, 장서각 등 국가 기관에 전승되어 오던 자료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상주박물관 소장본은 1871년 판중추부사였던 柳厚祚가 都提調로 임명된 이후 豊山柳氏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로 다른 반차도 자료와 차별점이 있으며 또 이 자료를 보충하는 承政院日記 기사 등을 통하여 당시의 행사에 대한 시작부터 포상까지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I. 반차도의 의미와 역사

1. 반차도의 의미

반차도는 국가 의례에 禮貌와 위엄을 갖추기 위해 班次를 숙지시키고

검척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다. 반차도는 일반적으로 의례를 거행할 때 지침으로 활용하고 훗날의 참고를 위하여 의례에 수록해 둔 경우가 많다. 관청에서도 업무와 관련되어 문자로 제작된 반차를 기록하여 소장 하면서 평상시 업무의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반차도는 행사 당일에 그린 것이 아니라 행사 전에 미리 참여 인원과 물품을 배치해 봄으로써 행사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圖上練習의 기능을 하였다.

또 내용의 표현 방식에 따라 글자로 시각화한 文字圖 형식과 그림으로 표현한 회화식 반차도로 나뉜다. 문자도 형식에서 시작되어 인물과 가마류 등 기물을 그림으로 대체하여 시각성을 추가하고 글자를 작게 附記하는 방법의 회화식 반차도로 변천하였다.

이러한 반차도는 현존하는 자료들에 의하여 형식을 구분해 볼 때 본문의 구성 방식에 따라 열을 지어 나아가는 행렬처럼 그린 行列式 반차도와 의례 공간에서의 設位班次를 글자로 표기한 排班圖 형식이 있다.

17세기 이후 현전하는 170여 종의 의례에는 가례, 책례, 존송, 국장(예장), 부모, 천릉, 어진 모사(도사), 진전 증견·영건, 종묘 개수·증수와 관련된 주제의 회화식 반차도가 포함되어 있고 권자본 형식으로 제작된 독립 반차도도 30여 건이 알려져 있다.

18세기 영·정조 연간부터 국왕권 강화 및 禮制 정비와 함께 반차도를 활용하면서 의례의 폭이 확장되고 제작 수준도 높아졌다.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는 前代의 형식을 상투적으로 따르는 경향을 보이다가, 1908년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회화식 반차도는 더 이상 제작되지 않고 문자 반차도로 약식화하였다.

2. 반차도 속의 의장

이와 관련되는 용어와 그림으로 鹵簿라는 것이 있는 바 이는 고려·조선 시대 왕실의 儀仗制度로 조회나 연회 등의 궁정 행사와 祭享, 陵行 등의 외부 행차 때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동원되는 각종 의장 물품과

운용 제도로써 의장으로 부르기도 한다. 보통 궁중에서는 의장이라 하고 행차 때는 노부라 부른다. 즉 鹵簿圖는 국가 의례에 禮貌와 위의를 갖추기 위해 의식 전의 예행연습이나 의식 당일 반차를 숙지시키고 검칙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이다.

노부는 그 규모에 따라 大仗, 小仗 혹은 大駕, 法駕, 小駕 노부로 구분하며 신분에 따라서도 태자(세자)노부, 왕비의장, 왕세손의장 등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吉儀仗, 凶儀仗과 대중국 관계의 의식에서만 특별히 사용되는 黃儀仗, 紅儀仗 등이 있다.

조선시대 노부의 관리와 운영은 兵曹의 乘輿司에서 담당하고 이 때 사용되는 의장 물품은 160여 가지 정도이다.

3. 반차도의 구성과 제작

반차도의 구성은 앞 열에 使令이나 書吏, 羅將 등을 횡으로 배열하고, 중앙 열에는 陽纛과 鼓吹 같은 중요 의장, 典樂, 의례 주인공의 책·보, 재궁과 신주 혹은 당사자를 모신 가마류, 담당 차비관을 배치하였다. 또 진행방향으로 볼 때 좌우열에는 의장기, 引路人, 內寺 등 시위 관련 사항을 배치하는 삼단으로 되어 있고 그 행열 뒤에는 禁軍이 따른다.

중앙 열의 인물은 후면에서 본 시점인 後面觀으로 전방을 향해 엮어진 모습으로, 가마류는 측면에서 본 시점인 側面觀으로 단면 혹은 입체형으로 묘사되며 상하 열의 의장기 擔持軍과 시위 군사들은 중앙 열을 향해 엮어진 측면관으로 묘사되었고 여러 각도의 시점에서 내려본 행렬을 삼단구성으로 묘사하는 방식이 반차도의 표현의 기본 형식이다.

반차도는 17세기 중엽까지 간략한 필치로 자유롭게 묘사되다가 1659년 효종 발인 때부터 像을 유형화하고 삼단 구성을 정연하게 갖추어 화면을 정돈하였다.

이러한 반차도는 17세기 전반까지는 필사하여 제작하다가 1661년 『孝宗祔廟都監儀軌』에서부터 상을 도장처럼 새겨서 찍는 印刻의 방법과 모자와 床, 의장기 같은 持物을 추가로 그려 넣은 뒤 채색하여 완성하는

印刷彩色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인각채색법은 반차도 독자의 제작법으로, 점차 인물의 형체와 持物은 물론 이목구비나 동작의 묘사 수준이 세밀하게 되었고, 중앙 열 가마채와 가마의 묘사 방식에 입체감과 공간감이 구현되는 등 기법 및 표현 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나갔다.

그러나 1907년의 『고종영친왕존봉도감의례』를 끝으로 이후부터 일제강점기에는 회화식 반차도가 더 이상 제작되지 않고 문자 반차도로 변화되었다. 이 시기 고종, 순종의 어장과 부모 관련 의례에 수록된 반차도는 모두 문자 반차도이다.

한편 반차도 가운데 어람용 의례의 경우는 행렬 구성과 공간 구성법이 분상용 의례 반차도와 동일하였으나 인각채색법을 쓰지 않고 정교하게 필사하고 채색을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9세기 이후부터는 어람용 의례의 반차도에도 인각채색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반차도의 제작은 당대의 유명 畫員들이 담당했다. 조선시대의 화원은 고려시대부터 도화원이 설립되어 화가를 양성하고 회화를 관장케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국초부터 도화원을 설치하였다가 후에 圖書署로 개칭되었다. 여기에 소속된 전문 화가들은 사진이 없던 당시에 그림을 통해 현장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하는 주요한 역할을 맡았다.

4. 내용

① 行列式 반차도

이 행렬식 반차도는 형식, 구성과 의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례 반차도 ; 17~18세기 전반에는 별궁에서 친영례를 행하고 同牢宴을 위해 신부가 대궐로 가는 詣闕班次圖 만 제작되었다. 1759년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 때부터 왕의 친영 행렬을 묘사한 반차도가 추가되었다.

▶책례 반차도 ; 책례에 필요한 교명·책·인, 왕세자의 연과 의장 등을 제작하여 대궐로 내입하는 반차도이다.

- ▶ 존숭(추송) 반차도 ; 정조 연간부터 제작된 것으로 존호(추상존호)의 책·보를 제작하여 대궐로 내입하거나 존호를 올릴 대상자(혹은 신주)가 있는 곳으로 배진해 가는 행렬을 그린 것이다.
- ▶ 발인 반차도 ; 국상 때 제작된 것으로 빈전에 모시던 혼백과 재궁, 책, 보류와 부장품 등을 산릉으로 배진해 가는 반차도이다. 부묘 때에는 혼전에 모시던 책, 보류와 신주를 禪祭 후 종묘로 봉안해 가는 행차가 제작되었으며 능원 천봉 때도 이에 준하였다.

이밖에 선대 왕이나 왕의 御眞을 그려 眞殿에 봉안할 때와 진전을 영건하거나 증수할 때에도 어진을 모셔 가는 행렬이 반차도로 제작되었다. 또 왕의 어진이나 신주에게는 살아 있는 국왕에 걸맞은 위위가 부여되었으며 종묘나 영녕전을 개수 혹은 증수할 때에도 신주를 다른 곳으로 이안하고 환안하는 행렬이 반차도로 제작되었다.

② 排班圖

의식을 거행하는 의례 공간에서의 반차를 나열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례 공간에서의 반차를 도해한 대표적인 배반도는 「正衙朝會之圖」로 正衙 즉 仁政殿에서 거행되는 朝賀 의주로서 1778년(정조 2) 4월 정조의 명에 의해 목판으로 새겨져 인출, 배포된 것이다. 이 형식은 의례에 수록된 것은 아니나 담당 관아에서 소장 업무를 숙지하기 위해 제작 비치된 것이다.

한편 의례에 수록된 배반도의 대표적인 예는 19세기 진작, 진찬, 진연 등 연향 의례의 문자 반차도이다. 19세기에 들어 왕실 어른에게 올리는 연향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연향 공간에 위치할 床卓과 香案 등 각종 기물, 의장, 담당 차비와 내외빈의 자리, 악대의 위치를 글자로 적어서 지침으로 삼도록 한 것이다.

③ 鹵簿圖

노부란 행차때 사용되는 의장을 말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반차도가 노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이는 왕실의 위의 즉 왕권과 정치력을 과시하기 위한 기물과 그 편성 및 운용제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때 사용하는 의장은 약 160여 가지로 吉儀仗, 凶儀仗, 黃儀仗, 紅儀仗으로 구분되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추상존호도 길의장에 속하는 것으로 노부는 旗幟類, 武器類, 傘類, 扇類, 幢類, 粧刀類, 樂器類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차도가 그려진 경우도 있다.

5. 반차도의 변천과 의례와의 관계

17세기 초기의 간단하고 고졸한 행렬묘사는 점점 화려하고 복잡해져서 19세기 중엽의 반차도들에서는 판으로 찍었으나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비례를 보이는 인물, 기마상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의 자세 묘사, 재료의 발전과 아름다운 색채 배합으로 구성된 세련된 화면감각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기와 20세기 초기의 반차도들에서는 형식적이며 다소 간략한 묘사가 두드러져 국력의 쇠퇴와 당시 일반 회화의 쇠퇴상황도 보여준다. 반차도는 회화작품으로서의 우수성과 기록화로서의 영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시대별로 특징과 나열방식, 동원된 화공들의 작업 수준과 제작 방식의 체계성이 점차 발전되다가 후기에 고식화되는 경향으로 변천되었다.

한편 반차도를 포함하는 기능이 유사한 성격의 의례는 제작의 시기로 볼 때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국장, 능원 천봉, 부묘, 가례, 책례, 추송 등 반복되는 의례 시에 참고하기 위해 제작되었고 회화식 반차도들이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영조~정조 연간에는 반차도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의례의 종류가 크게 확장되었다.

19세기 전반 의례 반차도의 화풍은 183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경향

을 보여 각종 수레와 가마를 사람과 함께 일체형으로 제작한 인각과 깃발 인각 등이 대폭 늘어나고, 명료한 이목구비와 윤곽선, 풍성한 소매와 옷자락, 자연스러운 동작을 보이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정확하게 계화로 작도된 신련이 선보인다.¹⁾

즉 도식적이던 기존 의례 반차도의 화풍이 변화된 원인은 19세기 전반 궁중회화들에서 부감법으로 공간감을 살리는 한편 작업의 기간 단축을 위하여 인각 목판을 사용하여 작업의 효율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이후에는 표현이나 행렬상의 변화 없이 전대의 형식을 유지하였고 1908년 이후부터 일제강점기에는 회화식 반차도가 문자반차도와 같은 형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Ⅲ. 太祖大王, 太宗大王 追上尊號 班次圖 형식 및 특징과 제작 배경 관련 내용

1. 형태사항

상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반차도의 제목은 [高宗 9年 1月 4日 太祖大王, 太宗大王 追上尊號時 班次圖]로 볼 수 있으며 高宗 9年 (1872)에 추상존호의식을 위한 자료로 전체적으로는 필사로 선을 그리고 채색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목판을 사용한 그림이 있어 반차도 내부에서 중복된 형태를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반차도 제2장 騎手 판화인 1번, 3번은 같은 목판이고 2번, 4번은 같은 목판으로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차도는 선장본의 형태로 총 13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책의 크기는 35.1 x 29.9cm이다. 반차도의 지질은 楮紙로 두께는 0.16mm에서

1) 제송희, “19세기 전반 의례 반차도의 신경향,” 美術史學研究, 제288호(2015), pp.113-114.

0.20mm이며 제3장은 0.19, 제4장은 0.17, 제5장은 0.16, 제6장은 0.18, 제7장은 0.19, 제8장은 0.19, 제9장은 0.15, 제10장은 0.16, 제11장은 0.17, 제12장은 0.16, 제13장은 0.16, 제14장은 0.16 등 큰범위의 오차는 없다.

또 각 장의 여백 색차값은 제1장 ; $L81.4 / a+2.6 / b+14.7 / c14.9 / h80.1$ 제13장 ; $L81.1 / a+4.6 / b+10.3 / c11.3 / h66.0$ 표지면 ; $L77.4 / a+5.2 / b+14.6 / c15.5 / h70.5$ 이고 제9장의 香亭 부분의 색차는 ; $L79.9 / a+4.8 / b+13.5 / c14.4 / h70.5$ 로 나타난다.

전체적인 자료의 발끈 폭은 1.7~2.2cm로 나타나며 축수는 대부분 19축으로 보인다. 圖像부분의 색은 제1장 회색 書吏는 $L68.9 / a+0.0 / b+6.7 / c6.7 / h89.9$ 로 제2장 녹색 禁府都事는 $L53.4 / a-3.8 / b+13.6 / c14.1 / h105.8$ 로 제2장 적색 鼓吹는 $L51.7 / a+36.4 / b+4.9 / c36.8 / h7.7$ 로 보인다.

상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반차도를 텍스트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제1면)

使令	使令	使令	使令	使令
書吏	書吏	書吏	書吏	書吏

當部官

(제2면)

羅將	羅將	羅將	羅將	羅將
----	----	----	----	----

禁府都事

靑蓋	鼓吹	鼓吹	鼓吹	鼓吹	靑蓋
雀扇					雀扇
靑龍	鼓吹	鼓吹	鼓吹	鼓吹	靑龍
朱雀					朱雀

中黃	鼓吹	鼓吹	鼓吹	鼓吹	中黃
白虎					白虎
玄武		典樂			玄武
燈		褥席軍			燈
鉞		褥席軍			鉞
銀登子					銀登子
金登子		床軍	床軍		金登子
銀橫瓜					銀橫瓜
金橫瓜					金橫瓜
銀立瓜					銀立瓜
金斧					金斧
金立瓜		龍亭			金立瓜

鳳扇
紅蓋

鳳扇
紅蓋

禁軍
禁軍

香亭

禁軍
禁軍

禁軍
禁軍
禁軍

太祖大王
玉冊腰輿

禁軍
禁軍
禁軍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褥席軍

床軍 床軍

太祖大王
金寶彩輿

(제3면)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靑蓋
의장의 하나)
雀扇

靑蓋²⁾ (예전
雀扇³⁾ (궁중

2) 靑蓋 ; 조선시대 의장의 하나로 긴 막대기 위에 펼쳐진 우산을 겹쳐 놓은 듯한 모양이다. 무과에 급제하면 나라에서 찬양하는 표시로 내려주기도 하였다. 제도는 紅蓋와 같은데, 청색 生綃를 쓰는 것이 다르다.

3) 雀扇 ; 조선시대 궁중 무용의 의장으로 중국에서 전래된 당악정제에 사용된 부채 모양

무용의 의장)

靑龍	鼓吹 鼓吹 鼓吹 鼓吹	靑龍 ⁴⁾
朱雀		朱雀 ⁵⁾
中黃	鼓吹 鼓吹 鼓吹 鼓吹	中黃 ⁶⁾
白虎		白虎 ⁷⁾
玄武	鼓吹 鼓吹 鼓吹 鼓吹	玄武 ⁸⁾
燈		燈
鉞		鉞 ⁹⁾
銀登子	典樂	銀登子 ¹⁰⁾
金登子		金登子 ¹¹⁾
銀橫瓜	褥席軍	銀橫瓜 ¹²⁾

의 의물로 부채의 좌우가 참새 날개가 펼쳐진 모습으로 되어있다. 작선은 呈才儀仗뿐 아니라 일반적인 의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그 모양은 달랐다.

- 4) 靑龍 ; 조선 시대의 大五方旗 가운데 陣營의 왼편에 세워 左軍을 지휘하는 데에 쓰던 軍旗. 파란 바탕에 청룡과 파란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고 火炎脚이 달려 있다. 깃대에 纓頭, 朱駱, 장목이 달려 있다.
- 5) 朱雀 ; 조선 시대의 大五方旗 가운데 진영의 앞에 세워 前軍을 지휘하는 데에 쓰던 軍旗. 빨간 바탕에 머리가 셋인 주작과 파랑, 빨강, 노랑, 흰색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고, 화염각이 달려 있다. 깃대에 纓頭, 朱駱, 장목이 달려 있다.
- 6) 中黃 ; 조선 시대에, 푸른 봉황이 그려진 의장기이며 노란 사각기로 봉황 주변에 파랑, 빨강, 노랑, 흰색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고 노란 火炎脚이 달려 있다.
- 7) 白虎 ;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오른편 문에 세워서 右營, 右衛를 지휘하는 데 쓰였다. 대가노부와 범가노부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흰 사각 바탕에 적색 날개를 달고 나는 백호와 청, 적, 황, 백색 네 가지 색깔의 구름이 그려져 있다.
- 8) 玄武 ; 현무기는 왕의 의장에 사용되던 오방기 五方旗 의 하나로, 북방을 상징하는 중기 中旗이다. 벽사와 수호의 목적으로 왕의 대가, 범가, 소가 의장, 기우제 의장에 사용되었다.
- 9) 鉞 ; 큰 도끼로 왕이 행차할 때 그의 위엄을 세워주기 위한 의장물이다.
- 10) 銀登子 ; 붉게 칠한 장대 끝에 은색으로 도금한 등자를 거꾸로 붙인 의장물이다.
등자는 말안장에 달아서 말의 양쪽 옆구리에 늘어뜨린 철제 발걸이로 왕의 후궁을 제외하고 의장을 갖추 수 있는 왕실 인물 모두가 사용했던 의장물이다.
- 11) 金登子 ; 붉게 칠한 장대 끝에 금색으로 도금한 등자를 거꾸로 붙인 의장물이다.
모두 나무로 만드는데 대와 맞닿는 등자 부분만은 쇠로 만들기도 한다.

金橫瓜	褥席軍	金橫瓜 ¹³⁾
銀立瓜		銀立瓜 ¹⁴⁾
金斧	床軍 床軍	金斧 ¹⁵⁾

(제4면)

金立瓜		金立瓜 ¹⁶⁾
鳳扇	龍亭	鳳扇 ¹⁷⁾
紅蓋		紅蓋 ¹⁸⁾

禁軍		禁軍
禁軍	香亭	禁軍
禁軍		禁軍
禁軍	太宗大王	禁軍
禁軍	玉冊腰輿	禁軍

- 12) 銀橫瓜 ; 나무로 참외 형태를 만들어 붉게 칠한 자루 위에 뉘어 놓고 은색을 칠한 것이다. 중국에서 참외를 의장물로 만들었던 이유는 넝쿨이 처음에는 짧지만 점차 널리 퍼진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길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왕의 대가에는 4자루, 법가, 영정, 세의장, 왕비, 왕의 모친 의장에는 2자루가 사용되었다
- 13) 金橫瓜 ; 참외 모양으로 만든 나무에 금칠을 하여 붉게 칠한 장대 위에 가로로 뉘어 꽂은 의장이며 왕의 가마인 御輦 앞쪽에 은형과 등의 다른 의장과 함께 좌우로 나뉘어 진열되었다. 노부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2개씩 동원되었다.
- 14) 銀立瓜 ; 의장의 하나. 나무로 참외 모양을 만들어 은을 칠한 것을 창대와 같은 붉은 막대기 끝에 박은 것이다.
- 15) 金斧 ; 의례용 도끼로 국왕의 권위와 군권을 상징하며, 주로 국왕의 의장물로 사용되거나 출진하는 장수에게 군권을 위임한다는 의미로 하사되었다. 금부에는 한쪽에만 날이 있으며, 도끼 머리에는 용이 이빨을 드러내고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 새겨져 있고, 도끼 머리 위로는 작은 창날이 달려 있다.
- 16) 金立瓜 ; 금칠한 참외처럼 생긴 것을 창대와 같은 붉은 막대기 꼭대기에 세워 박은 의장이며 나무로 만들었다.
- 17) 鳳扇 ; 긴 자루 끝에 부채 모양을 달아, 붉은 비단에 금색 봉황을 그리거나 수놓은 의장물이다.
- 18) 紅蓋 ; 의장의 하나를 이르던 말. 붉은 사에 용무늬를 그린 양산 모양으로 임금이 행차할 때 썼다. 제후국의 의장에 사용되었다.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褥席軍

(제5면)

床軍 床軍

太祖大王
金寶彩輿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差備官

巡牢	引倍	引倍	巡牢
巡牢			巡牢
巡牢			巡牢
巡牢			巡牢
巡牢			巡牢

都監都提調

(제6면)

提調(工)	提調(禮)	提調(戶)
李承輔	李參鉉	金炳國

都廳 都廳

[郎廳] [郎廳] [郎廳] [郎廳] [郎廳]
徐雲輔 · 李徽圭 · 李秀殷 · 俞能煥 · 鄭基春

(제7면)

[監造]官 [監造]官 [監造]官 [監造]官 [監造]官 [監造]官
李邁秀 金永稷 金學秀 任百謹 鄭顯恩 金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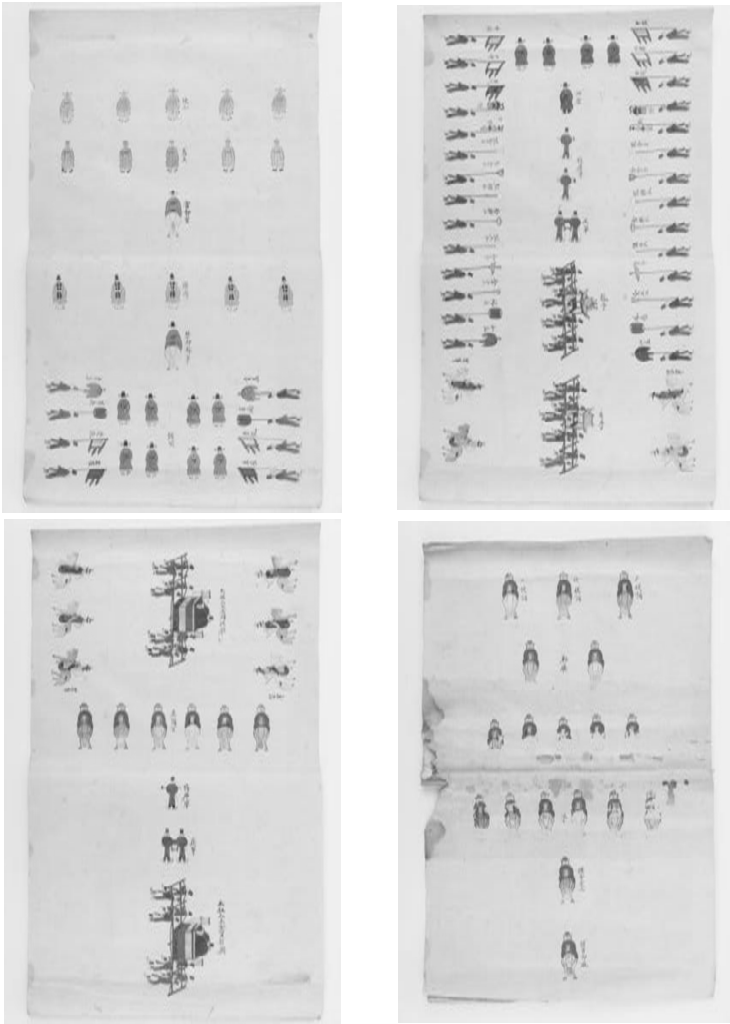
禮曹堂上

禮曹郎廳

이 행렬 가운데 의장기는 국가와 왕실의 상징적인 표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장의 핵심을 이루며, 이를 중심으로 다른 의장물들이 위엄을 갖추어 정렬하고 있다. 의장물 역시 斧(도끼), 칼, 槍 등 직접적인 권력의 표시가 되는 군사적 요소들과 傘(우산), 扇(부채) 등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의장을 사용하여 절대적 통치자인 국왕의 위엄을 표시하였다.

또 의장대 등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똑같은 형태의 인물들의 윤곽선을 목판으로 찍고 친필을 어느 정도 가하여 완성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에 들어 반차도의 면수가 점점 늘어난 18세기 이후의 반차도에서 모든 것을 필사로 처리하기가 힘들어 판화의 사용이 늘어났지만 부득이 친필로 처리해야 할 부분들이 항상 있었다. 본 자료에서도 판화사이의 기물이나 채색 등은 필사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의장물을 받쳐 든 옆모습은 먼저 윤곽선을 그리고 내부에 채색을 하는 鈎勒填彩法으로 표현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장물을 받쳐든 인물들의 두 팔은 옆 모습으로 겹쳐 지게 하나로 표현되었고 복식과 발의 방향도 일치하고 있다.

상주박물관 소장 太祖, 太宗大王 追上尊號時 班次圖의 서지적 분석(안희섭)



<그림 1> 상주박물관 소장 太祖, 太宗大王 追上尊號時 班次圖 일부

2. 형식과 특징

이 반차도의 구성 형식은 이미 영·정조시대에 형성되었던 전체적인 흐름이 반영되어 있다.

즉 그 시대의 특징적인 사항으로 국가 차원의 禮制 및 노부 및 의장 제도의 정비와 함께 전정에서의 의식이나 거동 시 국왕의 시위와 관련한 절차들이 대폭 정비되고 국가 의례에서 반차도의 활용 영역이 크게 확장된 양상이 반영되던 시기였다. 이미 앞선 시기에서 이루어지던 기본 전례 외에 선대왕의 御眞 봉안, 종묘의 신주 移安, 존숭 의례에서 반차도의 제작도 이어졌다.

특히 18세기 말부터 살아 있는 국왕의 행렬이 반차도로 시각화되기 시작하여 1795년 화성 원행을 계기로 독자적인 행렬도로 발전하였다. 그 영향으로 이 시기 반차도는 의례에 대한 국왕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여 국가 의례에 예모와 위의를 더하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받은 19세기 반차도는 행렬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반차를 분명히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는 양상으로 일렬횡대로 묘사되던 시위 군사들이 3隊로 作隊하여 묘사되고 가마마다 배진하는 차비관들이 그려졌다. 또한 의장기 담지군도 대·중·소 깃발의 크기별로 숫자를 달리하지 않고 1인으로 통일되었다.

구성에서는 다시점의 삼단 구성을 유지하면서 중앙 열의 가마를 입체 형으로 묘사하고 가마채와 여사군을 평행 사선 구도로 배치하여 사실적인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중앙 열의 가마 묘사에서 보이는 공간감은 17세기 의례 반차도의 평면적인 표현과는 다르게 입체적으로 나타나며 인각채색법이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운데 행렬 중 褥席軍 2인(중대)과 床軍 2인(횡대)은 같은 목판을 사용하여 찍은 뒤 색을 칠한 것이다. 이 때 床軍 사이의 床은 필사로 윤곽을 그리고 칠한 것이다.

또 고종시기 이 반차도보다 10년 전에 제작된 『純祖大王追上尊號 純元

王后追上尊號 都監儀軌』 속의 반차도(『追上尊號冊寶詣 宗廟班次圖』¹⁹⁾)도 1872년의 것과 유사하여 당시 행렬의 첫번째 香亭과 담지군의 목판화 모습은 1872년 태조, 태종대왕추상존호 반차도에서는 龍亭에 그대로 사용되어 좌측 열의 맨 앞 담지군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점까지 같다.

제작된 고종 시기에는 전시대부터 이어오는 특징으로 왕실 어른을 존숭, 추송하는 의례가 빈번하게 거행되면서 잔치 현장의 반차도 즉, 진작, 진찬 반차도와 존숭, 추송의 책보 행렬의 반차도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국왕의 친영 행렬에 대규모 군병을 동원하여 왕실과 왕권의 위엄을 드러냄에 따라 가례 반차도에서 시위 군사의 면수가 크게 늘었다.

표현 면에서는 1830년대 이후의 현상이 계속되어 인물이 약간씩 커져있고 얼굴의 이목구비가 좀더 세밀하게 묘사되고 비례도 적정해져 완성도가 높은 도상들로 구성, 제작되었다. 또한 각종 깃발과 의장물을 인각으로 제작하고 만장과 만장군도 일체형으로 인각하였다.

중앙 열의 가마채와 여사군을 배치하는 방식은 평행 사선식 구도를 따르고 인물의 신체 비례나 사물 간의 비례도 알맞을 뿐 아니라 여러 동작들을 포괄한 일체형 인각을 통해 좀 더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제작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반차도가 제작된 19세기 후반 철종~고종대의 표현 형식은 주로 전대의 조형을 답습하여 의례 반차도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고종대 의 왕권 강화를 반영하여 왕권과 왕실의 면모를 세우려는 의도와 개국 8周甲을 기념하여 태조와 태종의 존호를 4자에서 8자로 올리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 역시 같은 의도에서 제작된 일련의 행행도라 판단된다.

3. 반차도 제작의 배경과 관련 내용

이 반차도의 조성은 1871년 11월 11일에 고종이 麟趾堂에서 대신들

19) 원 자료의 첫 시작에 기록된 제목이다.

에게 다음해인 1872년이 태조와 태종이 조선을 개국한 지 8周甲 즉 480년이 되는 해이고 이미 궁궐도 중건되었으므로 개국의 성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태조와 태종의 존호를 4자에서 8자로 추가하여 올리는 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당시 대신이던 金炳學, 柳厚祚, 卍淳穆 등의 논의를 거쳐 추진되었다.

그 때 김병학은 肅宗 癸亥(1683)에 태조와 태종의 上號를 거행한지 2백년이 되었으며 왕이 癸亥年은 태종대왕이 登科한 해였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淳穆이 尊號의 글자 수를 몇 자로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물음에 김병학은 尊號와 諡號는 모두 8자로 올렸으며 숙종 癸亥에도 太祖室은 ‘正義光德’ 4자를 諡號로, 太宗室은 ‘睿哲成烈’ 4자를 추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宗廟와 各室의 시호는 원래 8자를 규정되었지만 태조와 태종실은 4자였던 까닭에 숙종 계해에 4자를 추가하여 8자가 되었다. 이에 왕은 시호의 글자수가 다른 것은 당시 典式의 차이지만 마땅치 않으므로 太祖·太宗議號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대제학 등이 의논하여 거행하라는 명을 내렸고 또 일을 맡길 사람의 선발에 尹定鉉과 申錫禧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즈음 일을 주관할 ‘追上尊號都監’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존호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사후 호칭의 경우 성리학 질서에 맞추어 국가와 왕실 권력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유구한 역사적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왕과 왕후에게 올리는 호칭을 尊號, 徽號, 諡號라고 하며 이때에 존호를 올리는 일을 上尊號, 尊號라고 하여 존호는 왕과 왕비의 덕을 칭송하는 호칭이다. 徽號는 왕후가 승하한 후에 諡號와 함께 올리는 존호이다.

존호라는 용어는 왕이나 왕후가 慶賀할 일이 있을 때 上尊號하는 것이고 이후 존호를 더 올리는 것을 加上尊號라 하며 승하한 후에 올리는 존호를 追上尊號라고 한다. 이 경우 追尊도 하고 復位上尊號하기도 하며 기록상 왕의 존호는 대체로 4자 또는 8자이며 왕후의 존호는 2자이다. 이러한 존호 의식을 올릴 때는 공덕을 기리는 頌德文을 玉簡에 새겨 철한 玉冊과 존호를 새긴 玉寶를 올리는 의식을 정중하게 거행하였다.

高宗 8年(1871) 11월 11일의 『承政院日記』 기사에 따르면 고종이 내
년이 개국한지 8周甲이 되는 해이고 우리 태조, 태종께서 국가를 처음
열고 이어가게 하셨다. 주상 자신도 이 기틀을 이었고 선왕들이 이룬 제
도와 문물도 국초에 정례에 바탕을 두고 있어 이제 궁궐도 중건되었으
므로 이를 실마리로 전례를 성대히 거행할 것을 명하시므로 대신들도
모두 따랐다.

이 과정의 하나로 太祖大王追上尊號와 太宗大王追上尊號의 儀節을 거
행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 택일하고 해당 관리를 부르며 都監堂郎을
차출토록 하였다.

같은 날 왕이 上號都監都提調에 柳判府事 즉 柳厚祚가 말도록 하고
吏曹에서 다음과 같이 담당 인사들을 제시하였다.

太祖大王追上尊號 太宗大王追上尊號
都監都提調單 判府事; 柳厚祚
提調三單; 金炳國 · 李承輔 · 李參鉉
郎廳五單; 徐雲輔 · 李徽圭 · 李秀殷 · 俞能煥 · 鄭基春
副校理; 鄭學默
敦寧都正; 成在平
引儀; 金用鍊
軍器主簿; 張允植
司宰奉事; 李寬英
假監役; 李熹謙
弘文館大提學單, 藝文館大提學單, 知成均館事單; 朴珪壽
金甲根; 檢書官單
[..... 이하 군현 수령 인사 생략]

또 李參鉉이 물어온 議號의 거행 날짜를 택일과 당일거행 중 택일거
행으로 정하고 追上尊號議定時儀節을 마련하고 謄錄에 의하여 追上尊號
議號單子를 왕이 대전에서 백관들이 올리는 進箋의 예를 받도록 하였다.

이튿날인 11월 12일에는 길일을 日官으로 李秉洪이 지명되어 이듬해
인 1872년 1월 4일로 정하였다. 또 행사시 반포되는 축하문은 冊寶를

올리는 다음날 마련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밖에 같은 달 16일에는 축하를 위해 올리는 궁중내와 지방의 箋文·方物·物膳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18일에 있을 太祖大王追上尊號·太宗大王追上尊號議定에 참석할 대신과 참석 대상을 정하였다.

18일에는 賓廳에서 太祖大王追上尊號로 ‘應天肇統廣勳永命’를 太宗大王追上尊號로 ‘建天體極大正啓佑’를 單子로 올렸고 왕이 勤政殿에서 존호를 백관들이 올릴 때 도승지 尹秉鼎 등이 차례로 참석하여 이후 행사가 진행되었다.

19일에는 太祖大王追上尊號와 太宗大王追上尊號의 冊寶에 대한 출입장소를 근정전으로 정하였고 거행의 시각을 子時로 하였다.

尊號 행사와 더불어 1872년 1월 4일에는 宗廟春享大祭親祭도 함께 거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11월 20일에는 追上尊號都監에서 올린 계에 의하여 도감의 주관으로 종묘에서 冊寶를 올릴 때 책보를 봉심하고 일자를 정하는 일에 전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 때 본 도감의 都廳과 郎廳에 두 사람을 추천하는 별단을 올렸던 바 都廳二單에는 崔鳳九와 趙秉轍이었다. 또 監造官 6인에 추천된 사람은 李邁秀, 金永稷, 金學秀, 任百謹, 鄭顯恩, 金璿이었고 낭청과 감조관은 방을 따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본 도감의 別看役에는 前郡守 姜潤과 僉知 玄濟昇이 추천되어 윤허를 받았다.

이 날에 행정적인 조직 이외에도 행사에 작성되는 각종 서식과 문건을 작성할 인물들에 대하여 玉冊文製述官, 書寫官, 樂章文製述官, 金寶箋文書寫官 實預差로 구분하여 제가를 받았다.

▶ 太祖大王玉冊文

製述官, 領府事	鄭元容,	預差 奉朝賀	李景在
書寫官 興寅君	李最應,	預差 南寧尉	尹宜善
樂章文製述官 右參贊	趙性教,	預差 大護軍	李興敏
金寶篆文書寫官 兵曹判書 姜滌,		預差 大護軍	趙基應

▶ 太宗大王玉冊文

製述官, 領議政	金炳學,	預差 右議政	洪淳穆
書寫官 知事	李宜翼,	預差 上護軍	金炳喬
樂章文製述官 大護軍	朴珪壽,	預差 寧豐君	崔遇亨
金寶篆文 書寫官 上護軍 趙秉昌,		預差 上護軍	任百秀

12월 1일에는 이러한 조직아래 제작될 冊寶가 근정전을 출발하여 종묘로 행할 때 왕의 행차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같은 1월 4일에 거행되는 春享大祭에 대한 부분도 이미 왕명이 있었지만 등록에 의거하여 己巳年 예와 같이 宗廟와 永寧殿 뜰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12월 4일에는 다음해 1월 4일 같은 날 두 행사가 진행되면 먼저 책보를 올린 후에祭를 치르고 축문은 함께 하도록 전하였다. 먼저 宗廟와 景慕宮에서 고유제를 지내고 전의 예에 따라 1일에 正朝祭와 社稷·永寧殿告由祭를 같이 치르며 축문의 추가는 예문관에 명하여 작성하며 獻官은 1품의 관리가 맡도록 하였다.

1872년 1월 4일 子時에 왕이 종묘에 나아가 태조, 태종의 추상존호 冊寶를 올리고 春享大祭에 참석할 때 신하들이 차례대로 나열하였고 시각이 되었음을 알리면 왕이 袞服·玉帶·赤舄을 착용하고 행사장에 나온다. 通儀使의 인도로 東神門에 이르면 통례사가 꿇어앉아 홀을 잡기를 청하여 잡은 후 冊寶를 올릴 때 어떤 承旨가 거행하는 것이 좋을지를 여쭙어 同副承旨가 맡으라는 명을 받았다. 이후 통례사, 引儀引捧冊官, 捧寶官이 이끄는 절차에 의하여 왕과 신하들의 행사가 차례대로 진행되었고

왕이 勤政門을 거쳐 思政門에 들어감으로써 행사가 끝나고 그 과정은 承政院日記 같은 1월 4일조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다음날인 1월 5일에는 행사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또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慶科를 실시함에 初試를 거치지 않고 대궐 안에서 시행되는 庭試만 치르게 하고 날짜를 잡도록 하였다. 더불어 두 慶科는 당일 즉시 합격자를 放榜하게 명하였다. 다음날에는 과거시험의 날짜를 4월 9일로 정하였다.

이 때 시상의 대상된 인물들과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承政院日記 1872년 1월 5일 사급내용]

○ 追上尊號都監都 提調以下別單

都提調 行判府事 柳厚祚, 內下大豹皮一令 賜給。

提調 兼戶曹判書 金炳國, 內下豹皮一令 賜給。

行工曹判書 李承輔,

禮曹判書 李參鉉,

都廳 宗府正 崔鳳九,

副司直 趙秉轍, 竝加資。

郎廳 戶曹正郎 徐雲輔,

禮曹正郎 李徽圭,

工曹正郎 李秀殷,

漢城判官 俞能煥,

宗府主簿 鄭基春,

工曹佐郎 朴宣陽,

別工作 繕工主簿 韓秉教, 竝陞敘。

監造官 前假監役 李邁秀,

前都事 金永稷,

前假監役 金學秀,

前都事 任百謹,

前參奉 鄭顯恩·金壇, 竝陞六。

● 太祖大王

玉冊文 製述官 領府事 鄭元容,
書寫官 興寅君 李最應, 各內下 大豹皮一令 賜給。
樂章文 製述官 右參贊 趙性教,
金寶篆文 書寫官 兵曹判書 姜滌, 各內下 虎皮一令 賜給。

● 太宗大王

玉冊文 製述官 領議政 金炳學, 內下 大豹皮一令 賜給。
書寫官 知事 李宜翼, 內下 豹皮一令 賜給。
樂章文 製述官 大護軍 朴珪壽,
金寶篆文 書寫官 上護軍 趙秉昌,

禮儀使 禮曹判書 李參鉉, 各內下 虎皮一令 賜給。
堂上執禮 副提學 洪遠植,
堂下執禮 副司果 朴定陽, 各兒馬一匹 賜給。

● 太祖大王 追上尊號時

大祝 副司果 趙肅夏,
讀玉冊官 護軍 金元植,
讀金寶官 護軍 俞致崇, 竝加資。
捧玉冊官 司僕正 李載德,
校理 朴容大,
舉玉冊案 執事 典牲判官 李裕敦,
司僕主簿 李容準,
褥席執事 掌苑奉事 李載復,
舉讀玉冊案 執事 漢城主簿 申鎬永,
司僕判官 洪鉉周,
褥席執事 司宰主簿 李燮應,
奉金寶官 副司果 吳長善,
副司直 姜[丿],
舉金寶案 執事 刑曹佐郎 柳驥榮,
軍資直長 金益承,

褥席執事 繕工奉事 南廷翊,
舉讀金寶案 執事 司僕主簿 鄭駿和,
 活人別提 朴齊性,
褥席執事 義盈奉事 李容元, 各兒馬一匹 賜給。

●太宗大王追上尊號時

大祝 副修撰 李晚者,
讀玉冊官 護軍 鄭健朝,
讀金寶官 宗正卿 李會淳, 竝加資。
捧玉冊官 掌樂正 李敦夏,
 舍人 洪殷謨,
舉玉冊案 執事 刑曹正郎 尹櫛,
 工曹正郎 金鳳集,
褥席執事 宗府參奉 李啓夏,
舉讀玉冊案 執事 工曹佐郎 朴宣陽,
掌樂 主簿 尹泰膺,
褥席執事 司槩奉事 李周弼,
捧金寶官 副司果 朴顥陽 · 李建昌,
舉金寶案 執事 儀賓都事 丁大永,
掌樂 主簿 李炳夏,
褥席執事 軍資直長 徐膺淳,
舉讀金寶案 執事 刑曹正郎 洪鼎裕,
 司宰直長 趙爽永,
褥席執事 長興奉事 蔡定默,
贊儀 玄錄,
東西唱引儀 黃觀周 · 金用鍊,
代致詞官假引儀 金洛熙,
奉禮兼引儀 金潛學,
香陪官 校書著作 玉景鍊, 各兒馬一匹賜給。
左通禮 朴海哲,
右通禮 成夏慶, 既已加資, 勿論。
香官 朴鍾滢,

祭文正書	忠義	金教成, 各上弦弓一張賜給。
別看役	前郡守	姜潤,
	前僉知	玄濟昇, 竝外職除授。

其餘致詞 陪進官·擇日官·奏時官·寫字官·畫員·牌將·守僕·員役 等, 竝依己巳年例施賞。

● 太祖大王追上尊號時

玉冊差備 林鳳說 · 金鍊熙,
案差備 金一鍊 · 韓聖喆,
褥席差備 安膺淵,
讀冊案差備 金秉五 · 禹啓範,
金寶差備 崔喜龍 · 任秉奭,
案差備 郭儀鳳 · 金德淵,
褥席差備 徐在珩,
讀寶案差備 金振鐸 · 白仁正,

● 太宗大王追上尊號時,

玉冊差備 金澤龜 · 文璟河,
案差備 邊成一 · 徐有錫,
褥席差備 姜世鼎,
讀冊案差備 李東礪 · 金永哲,
金寶差備 朴榮穆 · 林宗夏,
案差備 柳昌億 · 盧應淳,
褥席差備 金斗益,
讀寶案差備 閔致榮 · 梁周成, 各 上弦弓一張 賜給。

○ 傳曰,

● 太祖大王追上尊號時

玉冊差備 李孝元 · 金耆英,
金寶差備 尹淇浩 · 金翼鎬,

● 太宗大王追上尊號時

玉冊差備 柳載賢 · 金在鼎,
金寶差備 趙漢吉 · 金鍾憲, 竝加資。

이밖에 왕명으로 冊寶를 올릴 때 祭侍 韓濬明, 金圭復에게 각각 半熟馬 1필을 내려주었고 내려 주는 상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명하였다.

또 太祖大王·太宗大王追上 尊號都監의 都廳인 趙秉轍에 加資하고 追上 尊號都監의 都提調 이하의 단자와 親祭 때 亞獻官 이하의 別單을 써서 들이게 하였다.

더불어 왕이 冊寶를 올릴 때 宗廟令의 관직을 올리고 直長과 副奉事에게 각각 兒馬 1필을 내려 주었고 거행한 승지, 禮房承旨, 그 외에도 하례시 宣敎官과 左右通禮에게 加資하였다. 差備官들에게도 兒馬 1필씩 내려주었다.

行大護軍 李根友과 副護軍 成彝鎬, 李容學, 李炳敎과 中官인 金義明, 金鳳珞, 李漢容, 黃胤明, 金性淵에게도 百官과 더불어 왕이 직접 상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의 윤음을 반포하여 태조와 태종의 업적과 존호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같은 날인 1월 5일 太祖, 太宗大王追上尊號의 頒敎陳賀를 위하여 왕과 대신들이 참석하여 의식을 치르렀다.

4. 고종 시기의 尊號 儀式

조선시대 尊號는 왕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올리는 공식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재위 기간 중에 수많은 전쟁이나 정치적 사건 등을 겪은 왕들에게 존호가 많이 올라가거나 왕실의 어른으로서 대비 등이 생존했을 때 왕들이 존호를 많이 받게 되었다.

고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가 되면서 追上尊號와 追上諡號는 더욱 더 늘어나 신하들에 의하여 의도치 않게 여러 차례의 존호를 받게 되는 왕이 나타나게 되고 그 호칭도 초기에는 4자 정도에서 8자,

더 나아가 수십 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후대 왕들이 자신들이 존호를 받거나 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경우에 의례적으로 선대왕에게 존호나 시호를 追上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의례적인 행사가 되었다.

고종 때 태조와 태종의 존호를 올린 것도 그보다 먼저 숙종 때에 공정대왕과 노산군을 추존하면서 존호를 올리면서 尊諡와 존호를 올리는 법에 대하여 다시 의논하여 예론과 의례의 정비에 따라 태조와 태종에게도 존호를 올렸다.

고종시대에 先王에게 추상존호를 올린 빈도가 가장 많았고 국왕 자신도 여러 차례 존호를 받았다. 고종 9년(1872) 12월 때의 이최응이 청한 것을 비롯하여 1897년 황제의 등극과 관련하여 신하들이 청한 존호까지 본인이 계속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선시대 역대 왕으로서는 가장 많은 경우가 되었다.

1872년 1월 4일의 追上尊號와 이를 그린 반차도 역시 고종대의 일이지만 조선 개국의 8周甲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의례로서 의미를 가진 자료라 할 수 있다.

5. 追上尊號都監의 都提調 柳厚祚에 대한 기록

1872년 1월 4일의 태조, 태종대왕추상존호시에 도제조로 임명되었던 柳厚祚(1798-1876)는 그 호를 載可, 梅山, 洛坡, 嶺梅라 하였으며 시호는 文憲으로 부친은 都正 柳尋春이다.

그는 1837년 3월 8일(헌종 3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厚陵參奉이 되었다. 이후의 官歷은 다음과 같다.

1840년 6월 (헌종 6년)	繕工副奉事
1841년 12월 (헌종 7년)	尙瑞直長, 典設別提, 刑曹佐郎
1842년 6월 (헌종 8년)	刑曹正郎
1842년 8월 (헌종 8년)	長水縣監
1845년 6월 (헌종 11년)	平昌郡守
1849년 12월 (철종 즉위년)	長興府使

1854년 4월 (철종 5년)	瓦署別提
1854년 6월 (철종 5년)	掌樂主簿
1854년 7월 (철종 5년)	長興令
1855년 2월 (철종 6년)	江陵府使
1858년 5월 (철종 9년)	持平, 大都護府使, 新榜及第
1858년 11월 (철종 9년)	工曹參議, 左副承旨
1859년 5월 (철종 10년)	同副承旨
1860년 5월 (철종 11년)	右副承旨, 參贊官, 左副承旨
1861년 1월 (철종 12년)	右承旨
1861년 7월 (철종 12년)	大司諫
1861년 9월 (철종 12년)	左副承旨, 右副承旨, 參贊官
以追上尊號都監都提調意啓曰, 純祖大王玉冊文草圖書一本, 謹此封進, 待啓下, 令書寫官行 上護軍趙得林, 正書入刻之意, 敢啓。 傳曰, 知道。	
1861년 12월 (철종 12년)	副護軍
1863년 6월 (철종 14년)	右副承旨
1863년 8월 (철종 14년)	嘉善, 副摠管, 行護軍, 刑曹參判, 同春秋
1863년 10월 (철종 14년)	大司諫
1864년 5월 (고종 1년)	同義禁
1864년 7월 (고종 1년)	同經筵
1864년 10월 (고종 1년)	左尹
1864년 12월 (고종 1년)	吏曹參判
1865년 2월 (고종 2년)	大司憲
1865년 7월 (고종 2년)	同成均
1865년 10월 (고종 2년)	知敦寧單, 工曹判書, 知經筵
1865년 11월 (고종 2년)	通政, 知事, 知春秋
1865년 12월 (고종 2년)	弘文提學
1866년 1월 (고종 3년)	右議政, 祔廟都監 提調
1866년 2월 (고종 3년)	春享大祭神位版出安奉還時 都提調, 藥房都提調 嘉禮都監 玉冊文製述官 預差 祔廟都監 提調
1866년 4월 (고종 3년)	奏請正使
1866년 11월 (고종 3년)	翼宗大王追上尊號, 大王大妃殿加上尊號 追上尊 號都監玉冊文 書寫官

- 1867년 1월 (고종 4년) 追上尊號 玉冊文 書寫官
 1867년 5월 (고종 4년) 景慕宮夏享大祭 香祝親傳入侍時 引儀引獻官, 左議政
 1867년 7월 (고종 4년) 宗廟·永寧殿秋享大祭 都提調, 判府事
 1867년 8월 (고종 4년) 內醫都提調
 1871년 10월 (고종 8년) 藥房分都提調
 1871년 11월 11일 (고종 8년) 判府事, 上號都監都提調
 上曰, 明年卽我太祖·太宗, 建邦啓土, 化家爲國之八回甲, 而立經陳紀, 嚮明出治, 誕垂靈長之業, 皆在是關矣。是闕今旣重建 ...
 1872년 1월 5일 (고종 9년) 追上尊號都監都提調以下別單, 都提調行判府事柳厚祚, 內下大豹皮一令 賜給
 1872년 2월 14일 (고종 9년) 致仕奉朝賀單
 1872년 2월 26일 (고종 9년) 致仕大臣宣麻入侍時 引儀, 引奉朝賀, 親授教文
 1872년 5월 1일 (고종 9년) 時在慶尙道 尙州地
 1876년 1월 10일 (고종 13년) 卒柳奉朝賀喪葬等節, 照例舉行,
 遣道內守令中 曾經承旨人致祭, 祿俸, 限三年輪送, 嗣孫, 待闋服調用
 1876년 11월 27일 (고종 13년) 諡號 文獻

1858년(철종 9) 정시문과에 급제한 뒤 5월 20일에 통정대부의 품계가 加資되었고 부사, 부호군을 지내고 1863년 10월에 관직이 제수되었으며 사간원 대사간을 거쳐 1864년(고종 1)에 이조참판, 사헌부 대사헌, 제조를 겸하고 홍문관 제학에 이르렀고, 이듬해 공조판서를 지냈으며, 興宣大院君의 남인계 인사 중용책에 따라 1866년 우의정이 되었다.

같은 해 奏請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그곳 서양인들의 동정을 알렸는데, 丙寅洋擾 때에는 상주에 살던 아들 柳疇睦에게 의병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듬해인 1867년 좌의정에 오르고, 1872년에는 판중추부사로 관직을 마치고 奉朝賀가 되었다.

IV. 1862년 『純祖大王追上尊號純元王后追上尊號都監儀軌』 속의 반차도와의 비교

조선 후기 哲宗 13년(1862)에는 純祖 및 純元王后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순조는 조선의 제23대 왕으로 正祖의 둘째 아들이며 이름은 昉, 자는 公寶, 호는 純齋이었고 순원왕후는 永安府院君 金祖淳의 딸이었다. 이 의례의 구성은 目錄, 時日, 座目, 承傳, 財用, 甘結, 移文, 來關, 禮關, 儀註, 賞典, 儀軌事例, 一房, 二房, 三房, 別工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반차도²⁰⁾는 一房 의례의 말미에 책보를 내입하는 행렬을 채색으로 그려 수록되어 있다.

이 의례는 1861년(철종 12) 11월 21일에 도감이 구성되었고 1862년 1월 9일 종묘의 순조실에 존호를 친상하였다. 座目에서는 都提調, 提調, 都廳, 郎廳, 監造官, 別工作 등 도감 인원들의 명단을 수록한 것으로 존호도감의 都提調에는 金左根이 임명되어 작업을 총괄하였다.

당시 존호 추상과 관련하여 순조에게는 ‘高明博厚剛健粹精’이라는 존호가, 순원왕후에게는 ‘神運’이라는 존호가 추상되었다.

존호를 올리는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물 등의 제작은 1~3방에서 나누어 담당하였다. 一房에서는 옥책 및 관련 제구를 마련하는 일을, 二房에서는 금보 및 관련 도구의 제작을, 三房에서는 각종 輦輿와 儀仗을 마련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別工作에서는 假家와 庫間 및 그 외 소용 雜物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 중 1방 의례의 말미에 책보를 내입하는 행렬을 그린 채색의 班次圖가 수록되어 있다.

이 반차도는 시기로 볼 때 고종 9년(1872)과 10년의 차이 밖에 나지 않고 반차도의 목적과 성격도 선대왕의 추상존호라는 측면에서 유사점이 많다. 따라서 그 행렬이나 노부 역시 비슷한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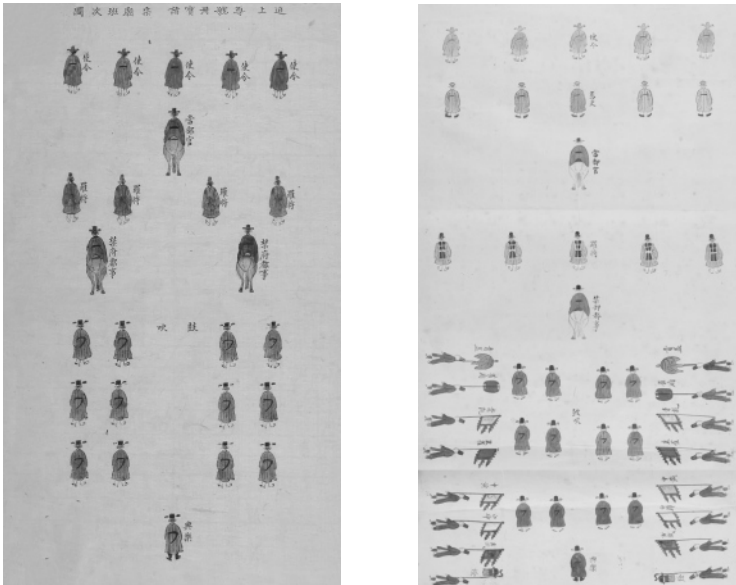
2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2847) 1862년 순조대왕, 순원왕후 추상존호도감의례

서로 대조해 보면 일부의 인물이나 형상에서 1862년에 새긴 목판을 다시 1872년에 같은 목판으로 조각된 부분을 찍어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는 龍亭과 香亭이 확인된다.

우선 전체적 구성을 행렬의 중앙부를 순서대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862년	1872년
使令 1렬 5인	使令 1렬 5인
	書吏 1렬 5인
當部官 1인	當部官 1인
羅將 4인	羅將 5인
禁府都事 2인	禁府都事 1인
鼓吹 3렬 12인	鼓吹 3렬 12인
典樂 1인	典樂 1인
香亭 (담지군 8인)	褥席軍 1인
褥席 1인	褥席軍 1인
讀冊床 1인	床軍 2인
褥席 1인	龍亭 (담지군 8인)
排案床 2인	香亭 (담지군 8인)
純祖大王玉冊腰輿 (담지군 8인)	太祖大王玉冊腰輿
捧玉冊官 2인	差備官 6인
褥席執事 2인 學讀玉冊案執事 3인	
香亭 (담지군 8인)	
褥席 1인	褥席軍 1인
讀冊床 1인	床軍 2인
褥席 1인	
排案床 2인	
純祖大王金寶彩輿 (담지군 8인)	太祖大王金寶彩輿
捧金寶官 2인	差備官 6인
褥席執事 2인 學讀金寶案執事 3인	鼓吹 3렬 12인

鼓吹 3열 12인	典樂 1인
典樂 1인	褥席軍 1인
香亭 (담지군 8인)	褥席軍 1인
褥席 1인	床軍 2인
讀冊床 1인	
褥席 1인	龍亭 (담지군 8인)
排案床 2인	香亭 (담지군 8인)
純元王后玉冊腰輿 (담지군 8인)	太宗大王玉冊腰輿 (담지군 8인)
捧玉冊官 2인	差備官 6인
褥席執事 2인 舉讀玉冊案執事 3인	褥席軍 1인
香亭 (담지군 8인)	床軍 2인
褥席 1인	
讀冊床 1인	
褥席 1인	
排案床 2인	
純祖大王金寶彩輿 (담지군 8인)	太宗大王金寶彩輿 (담지군 8인)
捧金寶官 2인	差備官 6인
褥席執事 2인 舉讀金寶案執事 3인	引陪 2인
使令 5인	
書吏 5인	
都監都提調 1인	都監都提調 1인
都監堂上 3인)	提調 3인
	(工曹, 禮曹, 戶曹)
都廳 2인	都廳 2인
郎廳 6인	郎廳 5인
監造官 6인	監造官 6인
禮曹堂上 1인	禮曹堂上 1인
禮曹郎廳 1인	禮曹郎廳 1인



<그림 3> 1862년 반차도와 1872년 반차도의 제 1면 비교

궁중에서 설행되는 의장 제도에 대해 『禮記』의 ‘曲禮’에서는 “행군하는 데는 朱鳥의 기를 앞세우고 玄武의 기를 뒤에 세우며 청룡의 기를 왼편, 백호의 기를 오른편에 세운다”라고 하여 의식이 일찍부터 음양오행설에 의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鹵簿半仗

노부반장은 왕실의 조회와 연회와 행차 등 각종 의전행사에서 존엄과 권위를 나타내고 위의를 갖추기 위해 식장에 배열하거나 행차에 앞장서 이끌게 하던 의장제도를 말한다.

대체로 궁정에서는 儀仗이라 하고 행차 때에는 鹵簿라고 하는데, 儀는

‘威儀’를 말하고 仗은 창이나 칼 같은 병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鹵는 큰 방패로서 무리통솔에 쓰이던 것이며, 簿는 군대가 호위하는 절차를 기록한 것으로서 둘을 아울러서 노부라 하는 것이다. 조선조에는 약 160여 종의 의장 물품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조선시대 최고 의례서인 『國朝五禮儀』의 ‘鹵簿’ 조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의장은 신분에 따라서 전하의장, 세자의장, 왕비의장, 왕세손의장으로 나누거나 용도에 따라 吉儀仗, 凶儀仗, 黃儀仗, 紅儀仗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특히 국왕행차인 경우에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大駕鹵簿, 法駕鹵簿, 小駕鹵簿로 구분하기도 한다. 대가노부는 사직과 종묘에 親享할 때에 사용하고, 법가노부는 先農에 친향할 때, 視學할 때, 殿試, 文廟享祀 등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소가노부는 拜陵 및 行幸時에 사용되었다.

길의장에 속하는 것으로 각종 旗幟類, 傘扇類, 幢類 등이 있다. 기치류를 살펴보면, 五方之神을 그린 푸른 바탕의 청룡기, 붉은 바탕의 주작기, 황색 바탕의 황룡旗, 흰 바탕의 백호기, 검정 바탕의 현무기 등의 오방대기가 있다.

그리고 흰 바탕에 표범 모양의 神獸인 白澤旗와, 말 모양의 신수인 三角旗 그리고 황색 바탕에 초록색의 鳳을 그린 碧鳳旗가 있다. 또한, 붉은 바탕에 청룡을 그려 殿庭 문밖에 세우거나 행렬 전방에 가는 紅門大旗가 있고, 검은 바탕에 청룡을 그려 御駕 뒤에서 받들게 하는 後殿大旗가 있다. 그리고 대표적 의물로 어가 앞에 金鉞斧와 水晶杖과 纛과 龍旗를 세우고, 어가 뒤에 陽纛과 靑紅蓋와 繖扇이 따라서 위의를 갖추게 된다.

이 반차도와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내용상으로도 추상존호로 같은 1862년 때의 반차도 행렬의 바깥에 늘어서 행진하는 노부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862년	1872년	1872년 계속 부분
紅盖	靑盖	禁軍
白澤旗	雀扇	禁軍
三角旗	靑龍	禁軍
角端旗	朱雀	禁軍
碧鳳旗	中黃	禁軍
朱雀旗	白虎	
	玄武	巡牢
	燈	巡牢
	鉞	巡牢
銀鐙子	銀登子	巡牢
金鐙子	金登子	巡牢
銀立瓜	銀橫瓜	
銀橫瓜	金橫瓜	
金橫瓜	銀立瓜	
金鉞斧	金斧	
雀扇	金立瓜	
鳳扇	鳳扇	
靑盖	紅盖	

이 그림에서 나타난 차이는 旗幟의 차이와 행렬사이 禁軍과 巡牢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태조, 태종의 추상존호라는 성격에서 좀 더 威儀가 갖추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중앙 행렬의 구성

현재 전주의 慶基殿 御眞博物館에는 고종9년(1872) 1월 조선 태조의 어진이모봉안 시에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향정과 신연이 전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이 향정과 신연은 1999년

새로 모사된 어진을 봉안할 때에 미리 복원하여 안치한 것이다.²¹⁾ 모두 천으로 감싸고 칠을 한 들 채(杠)만 거의 온전하고, 들 채 위에 설치된 기둥과 벽과 지붕이 몹시 훼손되어 남은 것을 다른 『의례』와 『예서』들을 참고로 복원한 것이다.

1) 龍亭

용정은 중국 황제가 내리는 勅書나 왕·왕비 등에게 존호를 올리는 玉冊, 금으로 제작한 왕의 도장 金寶 등의 중요한 문서나 물건 등을 의례에 사용하기 위하여 옮길 때 사용하던 가마를 말하고 ‘龍亭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조선의 의례제도가 정비되면서 칙서 등의 중요한 문서나 황제가 하사하였던 印章과 같은 의미 있는 물건 등을 용정에 넣거나 꺼낼 때에 맞는 의식이 갖추어져 세종이 즉위한 이후 예조에서 여러 의례의 절차와 형식 등을 정리해 보고하면서 용정의 사용 방식 등이 체계화되었다. 당시 중국과의 외교에서 사용되었지만 그 외에도 상왕과 대비를 封崇하는 의례를 진행할 때 용정을 사용하였다. 용정은 칙서나 책보를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의례가 진행되면 용정의 앞에는 향로를 두는 香亭을 두었다고 하지만 이 반차도의 경우는 용정-향정-채여의 순서로 행렬이 나열되어 있다.

용정의 형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세종대의 기록 중에 黃屋龍亭과 靑屋龍亭 등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용정의 지붕이 황색과 청색 등으로 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의례나 문서·물건 등의 성격에 따라 사용하는 용정이 구분되어 있었음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 반차도에 나타나는 용정은 지붕과 사면 벽의 색은 같지만 지

21) 원재식, “御眞奉安班次圖의 追寫와 복원 小考,” 한국민화, 제12호(2020, 6), p.35. pp.22-45.

붕의 형태는 달라서 가운데 높은 호로병 형식의 장식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용마루가 연결되어 있다.

2) 香亭

향정은 향로와 향합을 넣어 받쳐 드는 가마로 왕가나 관청의 특정 의례 시에 龍亭이나 신연 앞에 기치, 傘, 扇, 蓋 등의 각종 의장들과 함께 배설하여 행렬을 이루어 사용되었고 본 반차도에서는 용정 뒤에 따르고 있다.

길을 따라 행렬이 앞으로 행진할 갈 때에 향정 차비관이 芙蓉香 등을 피우게 했으며 그 형태는 다른 가마들과는 다른 모양으로 위쪽의 지붕은 包作을 갖춘 팔작지붕의 한옥 형태를 따랐고, 용마루와 수막새를 갖춘 기와글과 서까래까지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아래에는 긴 들채(杠)가 있으며 한가운데 精板을 깔고 기둥을 세워서 사방에 낮은 벽면을 설치했는데 녹색을 바깥에 칠하고 안쪽은 청색으로 칠했으며 담지군 8명이 메는 구조이다.

3) 腰輿와 彩輿

요여는 『세종실록』 ‘五禮儀篇’에 죽책, 옥책, 금책, 御寶 등을 운반할 때 사용한 冊寶腰輿라는 것과 明器服玩腰輿 등의 기록이 있다. 채여도 왕실에 의식이 있을 때 詔書나 御書 등 귀중품을 실어 옮기던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교자모양의 기구로 작은 가마이며 이 반차도에서는 두 가마가 같은 형태와 구조로 그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향정을 비롯하여 기치와 繖扇 등의 의장들을 앞뒤에 벌려 御駕의 鹵簿 의례처럼 시위하게 하였다. 형태를 살펴보면, 몸체 좌우에 기다란 들 채(杠)가 있어서 가운데 조형물에는 사방에 채색한 鳳頭가 있고 입에 붉은 장식의 실을 물고 있다. 들 채 가운데 앞뒤로 가로대 5개가 있고 지붕 꼭대기는 호로병 모양으로 장식이 있으며 외각 사면을 둘러서 판자 처마를 설치했다. 8명이 메고 행진하는 구조이다.

4) 鼓吹

吹螺赤과 鼓吹라는 용어는 모두 吹打手 또는 취타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 뜻은 글자 그대로 불고(吹), 치(打)는 형태의 음악이라는 뜻이다. 즉 태평소, 나팔, 나각 등의 취주 악기와 龍鼓, 杖鼓, 桴鼓, 桴鼓, 桴鼓, 桴鼓 등 음량이 큰 타악기들로 편성하여 의식 때 연주하는 행진음악을 말한다. 이러한 大吹打는 왕과 고관들의 행차, 군대의 행진에서 위의를 갖추고자 취고수들이 대열을 이루어 연주했던 것이다.

이 취타수는 宣傳官廳에 소속되었지만 訓練院과 禁衛營 등 五營門에도 별도의 취타수가 있었으며, 지방의 監營, 兵營, 水營에도 취타수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의식 때 행렬 선두에 취고수가 앞장서고 뒤에 細樂手가 따랐는데, 앞에는 주로 타악기 중심으로 편성되고, 뒤 따르는 후부는 해금, 피리, 장구 등 가락 악기가 중심이었다.

조선 후기의 행악으로 쓰이는 음악 중 三絃六角은 그 악기편성이 6인으로 향피리 2인, 대금, 해금, 장구, 북을 원칙으로 경우에 따라 악기와 인원수에 차이가 있었다. 특별히 왕의 행차 가운데 御駕 앞뒤에 있는 악대 중 앞을 前部鼓吹라 하여 대취타의 악기류이고, 뒤는 後部鼓吹라 하여 삼현육각의 편성으로 이 삼현육각 악사를 ‘細樂手’ 또는 ‘三絃手’라 하였다.

3. 太祖大王·太宗大王追上 尊號 때의 朴珪壽가 지은 玉冊文

한편 당시 玉冊文의 樂章文製述官이었던 朴珪壽는 1872년 1월 5일 근정전에서 나아가 社稷壇의 祈穀大祭에서 대제학으로서 香祝을 다음과 같이 쓰고 전하였고 이에 赦令이 반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조 대왕께서 새 왕조를 세운 임신년(1392)이 다시 돌아와서 옛날의 경사를 추억하게 되는데다가 지난해는 또 태종 대왕께서 즉위하신 해와 같은 신년(辛年)으로써 이 역시 기념할 만한 일이다. 역사가 이미 오래된 나라였지만 그때에 이르러 왕조를 새롭게 세웠으니, 그것은 모두 백성들의 소원대

로 하늘에서 마련해 준 것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대왕은 옛날의 어질고 훌륭했던 임금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셨다. 처음에는 미미한 자리에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커다란 업적을 세움으로써 왕조를 세우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 놀라운 업적을 이룩했으며, 남으로 징벌하고 북으로 토벌하는 위엄을 보여 끊어진 왕조를 다시 이어주고 내쫓긴 왕을 도로 불러들였으며, 위태로운 세상을 태평한 천하로 만들어 놓으셨다.

왕조를 새로 세우는 일이 시종 정당하였기 때문에 명 나라의 보살핌을 받았으며, 나라의 한복판인 한양에 도움을 새로 정하여 후대에까지 더없이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중국에 태고 때에 복희씨(伏羲氏)니 신농씨(神農氏)니 하는 임금들이 있었듯이 우리나라에는 단군이며 기자(箕子)며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나라 이름을 옛날에 부르던 조선(朝鮮)으로 정하였다. ... 그래서 이번 초나흘날에 태조 대왕께는 ‘응천 조통 광훈 영명(應天肇統廣勳永命)’이라는 존호를 추상하는 동시에 태종 대왕께는 ‘건천 체극 대정 계우(建天體極大正啓佑)’라는 존호를 추상하였다.

종묘에다 좋은 칭호를 추상한 다음에 다시 대궐 뜰에서 해당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 의식은 선대의 조상을 높이는 데서 경의와 정성을 다하는 것이니, 이런 행사로 인연하여 웅당 복이 내려 우리나라는 더욱 흥성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리라. 해와 달이 밝게 임함에 임금이 앉아서 정사를 펴는 곳을 밝게 비쳐줄 것이려니와, 우레와 비가 내려 얼음을 녹여 줌에 허물을 용서해주고 때를 벗겨주는 은혜를 베푸는 바이다.

이달 초닷새날 이른 새벽 이전에 지은 죄 가운데 사형죄 이하의 잡범들은 다 용서해 주노라.

아! 대법(大法)을 따름에 온 천하에는 화목한 기운이 흘러들고 큰 은택이 베풀어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래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복을 때에 따라 누리자면 맨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억만년 내려가면서 누리게 될 하늘의 복은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에 교시하는 바이니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²²⁾

22) 한국고전번역원 DB의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9권 고종9년 1월 5일 경인 1번째기사 번역문에 의함

V. 맺음말

살펴본 상주박물관에 소장된 반차도로 조선후기 고종 때 문신이던 柳厚祚의 가문에서 기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관련 기록에 대한 사료 조사와 유사한 성격의 반차도 및 이를 수록하고 있는 의궤류를 검토하고 서지적인 분석을 통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 반차도의 제작의 목적은 1871년 11월부터 왕과 신하들의 논의 가운데 이듬해인 1872년이 조선 개국 8주갑인 480년이 되는 해가 되는 까닭에 태조와 태종의 존호를 더하여 올리는 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때 태조는 ‘應天肇統廣勳永命’이라는 존호를 추상하는 동시에 태종은 ‘建天體極大正啓佑’라는 8자씩으로 하여 이전 4자이던 존호를 다른 왕들에 맞추어 규정화하였다.

둘째, 추상존호의 행사는 1872년 1월 4일로 결정되고 그 주관자인 도제조로 柳厚祚가 임명되고 도감을 열어 분야별 준비를 하였고 더불어 같은 날 春享大祭도 거행되었다. 또 추상존호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慶科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셋째, 이 반차도의 구성은 중앙 행렬에는 龍亭, 香亭, 腰輿, 彩輿를 중심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鼓吹, 典樂, 褥席軍, 床軍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렬은 태조, 태종의 순서로 맨 앞에는 使令과 書吏이 있으며 용정과 향정, 요여 뒤의 金寶彩輿의 사이에는 差備官이 있고 巡牢 뒤편에 都監都提調와 提調 3인, 都廳, 郎廳, 監造官, 禮曹堂上, 禮曹郎廳이 차례대로 행렬의 뒤를 따른다.

넷째, 반차도의 좌우 鹵簿에는 旗幟 5기를 비롯한 扇, 斧, 蓋를 합하여 18기가 나란히 행진하며 뒤이어 말을 탄 禁軍이 5기씩 따른다. 이 가운데 이물의 형상은 印刻한 목판을 사용하여 같은 형상이 중복된 경우도 있으며 향정과 용정은 1862년에 사용한 목판을 다시 사용한 후 색깔을 넣어 완성하였다. 差備官이나 褥席軍, 鼓吹 등도 같은 이미지를 반복 사용하였다.

다섯째, 高宗 시기에는 추상존호의 행사가 가장 많았던 시기로 대체로 왕권의 위엄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선대 왕들을 올리는 의식이지만 당시는 신하들의 주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많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러한 경향이 더 빈번해졌다.

이상과 같은 검토에서 이 반차도는 태조와 태종의 추상존호를 위한 행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도감의 도제조이던 류후조가 소장하였던 것이다. 전체적인 행차는 19세기 같은 목적의 다른 반차도와 유사한 점도 많으나 17세기부터 사용되던 인각 목판과 채색, 그리고 부감법을 이용하여 위에서 경사지게 내려보는 형식으로 공간감을 주고 시각적인 입체감을 주는 특징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반차도는 의례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작되어 도제조가 개별적으로 소장하여 전래된 것으로 당시 행사에 관련된 모든 기록 즉 목적과 분야별 작업, 행사의 절차, 행사후 포상 등에 관련된 모든 기록이 承政院日記 등에 상세하게 남아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개발에 활용하는 등 행사의 복식, 기물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인각 목판에 의한 인쇄 방법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논문은 2024년 01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2월 28일부터 0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원전

『純祖大王追上尊號純元王后追上尊號都監儀軌』, 尊號都監 編, 哲宗 13年(1862), 필사본 1책(장서각, K2-2847)

『承政院日記』 高宗 8年(1811) - 高宗 9年(1872)

『御眞移摸都監都廳儀軌』 高宗 9年(1872) 壬申 正月日, 필사본, 1책(장서각 1410/236/1-1)

『儀仗班次圖』 禮曹 編, 刊年未詳, 필사본 1책(奎貴 9944)

*단행본 및 논문

강영민, 「조선시대 上尊號의 정치, 의례적 기능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 서울 :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김세은, 「1861년(철종 12) 純祖·純元王后의 尊號追上과 純祖大王追上尊號純元王后追上尊號都監儀軌」, 『규장각 소장 의례 해설집』 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4.

김정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의례 도식 목판」, 『고궁문화』 2, 국립고궁박물관, 2008, 12, 116~142쪽.

김종수, 「尊號, 尊崇, 上號都監儀軌 명칭에 대한 小考」, 『溫知論叢』 12, 온지학회, 2005, 159~184쪽.

김지영, 「조선후기 儀軌 班次圖의 기초적 연구」, 『한국학보』 31-1, 일지사, 2005, 56~100쪽.

김지영, 「조선시대 尊崇儀式的 의미와 上號都監儀軌(해제)」, 『英祖四尊號上號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朴銀順, 「朝鮮時代 王世子冊禮儀軌 班次圖 研究」, 『한국문화』 1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3, 553~612쪽.

박은순, 「조선후기 의례의 관화도식」, 『국학연구』 6, 한국국학진흥원, 2005, 249~308쪽.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서울 : 일지사, 2000.

- 廉世情, 「憲宗嘉禮圖 研究」,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원재식, 「御眞奉安班次圖의 追寫와 복원 小考」, 『한국민화』 12, 한국민화학회, 2020.6, 22~45쪽.
- 임혜련, 「철종대 순원왕후 존호의례의 거행과 의미」, 『여성과 역사』 36, 한국여성사학회, 2022, 135~168쪽.
- 제송희, 「18세기 행렬반차도 연구」, 『美術史學研究』 273, 한국미술사학회, 2012, 101~132쪽.
- 제송희, 「19세기 전반 의례 반차도의 신경향」, 『美術史學研究』 288, 한국미술사학회, 2015, 89~120쪽.
- 홍명화, 「외규장각 의궤류의 서지학적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Abstract

Analysis of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the
Procession Ceremony for Offering Eulogistic
Posthumous Titles on King Taejo and King Taejong,
held in Sangju Museum

Ahn, Hui-sub

The artifacts under review were donated by the family of Yoo Ho-so, a scholar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and are currently housed in the Sangju Museum. In relation to this, through an examination of related records and similar types of "banchado" (a traditional Korean parade banner) and their inclusion in "eui-gwiryu" (official records), the following results were generally confirmed.

First, the purpose of creating this "banchado" was to conduct a ritual in 1872 to honor both King Taejo and King Taejong by adding their posthumous names. This was due to the year 1872 marking the 480th year since the founding of Joseon, which was a significant occasion.

At this time, King Taejo's posthumous name was abstracted as "應天肇統廣勳永命," while King Taejong's was expressed as "建天體極大正啓佑," both consisting of eight characters each, departing from the previous four-character posthumous names used for other kings.

Second, the ritual for these posthumous names was scheduled for January 4, 1872, and Yoo Ho-so was appointed as the chief organizer, preparing for it in various ways. On the same day, the "Chunhye Daeje" (Spring Great Ritual) was also held. Furthermore, a "gyeonggodo" (civil service examination) was planned to commemorate the significance of

the posthumous names.

Third, the composition of this "banchado" consists of a central procession featuring the "Dragon Pavilion" (龍亭), "Fragrant Pavilion" (香亭), "Waist Palanquin" (腰輿), and "Color Palanquin" (彩輿), accompanied by "guchui" (drum and trumpet players), "deonnyeog" (musicians), "rugyeokjun" (mat carriers), and "chwangjun" (bed carriers). The procession is followed by King Taejo and King Taejong, with "sireung" (officials) and "sajang" (military commanders) between the "Geumbok Color Palanquin" (金寶彩輿) and the "chabeobi" (auxiliary officials), and the "junnaeng" (officials in charge of processions) at the back.

Fourth,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banchado," there are 18 items in procession, including five flags, fans, axes, and canopies, followed by "kingun" (mounted soldiers). The shapes of these items were created by carving wooden blocks, and in some cases, the same shapes were used repeatedly. The "fragrant pavilion" and "waist palanquin" reused wooden blocks from 1862 and added colors to complete the images. The "chabeobi" and "rugyeokjun," as well as the "guchui," also repeated the same images.

Fifth,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ceremonies for honoring previous kings with posthumous names. This was mainly intended to display the dignity of the monarchy. While the purpose was to conduct rituals to honor previous kings, many of these ceremonies were carried out at the request of the king's subjects, and this tendency intensified when the king ascended to the throne.

In conclusion, this "banchado" was created for the ritual to honor the posthumous names of King Taejo and King Taejong. It was stored by Yuhujo, who was in charge of the "dogaem" at the time. While the overall procession shares similarities with "banchado" for similar

purposes from the 19th century, it retained features like using woodblocks for printing, color, and relief carving techniques from the 17th century to provide a sense of space and three-dimensionality. This "banchado" was created separately and kept by Yuhujo, the "dogaem" at the time. Detailed records related to the event, including its purpose, the tasks by category, the procedures, and the rewards, can be compared in extensive detail using records like the "Seongjeongwon Ilgi" (Royal Secretariat Diary). In the future, this valuable material can be used for research on rituals and artifacts, as well as for research on woodblock printing methods.

keywords :

Banchado(班次圖), Ryu Hu-Jo(柳厚祚), Chusangjonho(追上尊號), King Taejo(太祖大王), King Taejong(太宗大王)